

따뜻한 겨울나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 모아

전주시 여성기업인협의회 전주시에 '사랑의 이불' 전달

전주지역 여성기업인들이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사랑의 이불을 후원했다. 전주시는 18일 전주시 여성기업인 협의회(회장 한춘자)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사랑의 이불' 30채(20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이불은 전주시 여성기업인협의회 회원들이 바쁜 일정 중에서도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준비한 것이다. 전주시 여성기업인 협의회는 제조업중심의 여



전주시 여성기업인 협의회가 18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사랑의 이불' 30채를 후원했다.

성기업인 모임으로 지난 2014년 9월 창립대 현재 4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김치·연탄 지원과 전주시 천만그루 나무심기 등에 동참했다. 지난 7일에는 노송동 지역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1250장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불을 선물 받은 한 어르신은 "올 겨울은 사랑과 행복이 담긴 이불을 덮고 지낼 수 있어서 더 따뜻하게 보내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소득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대 김영례 초빙교수 새한학술상 수상

전북대학교 김영례 강의초빙교수(인문대 철학과)는 새한철학회에서 주는 '2019 올해의 새한학술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김 초빙교수는 지난 7월 '철학논총' 제97집에 '칸트에서 지식과 언어라는 연구논문을 실었고, 올해의 세계 논문 가운데 최고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칸트의 인식이론을 언어철학적 관점에서 탐구하면서 심신의 문제와 언어의 본질 사이의 연관성을 해명함으로써 칸트 인식론에서 언어론의 의의를 규명하고 있다.



이 주제는 칸트철학에 대한 국내에서 다루지 않은 언어, 지식, 마음의 관계에 대한 독창적인 것으로, 현대의 인지과학에서 물리적 속성과 심리적 속성의 관계에서 비롯된 난점을 칸트가 제시한 방식이 한 해결방식이 될 수 있음을 밝히는 탁월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보건행정학과 연세대 원주 연계편입학 합격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보건행정학과 국유진, 유동하, 이다선 학생(이상 3명)은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연계편입학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주비전대 보건행정학과는 지난 5년간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의 연계편입학 전형에 전문학사 졸업생 9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는 2005년 개설된 이후, 전공분야를 선도하는 심화된 교육을 통해 보건행정 및 병원행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해 왔으며 3년제 전문학사 교육과정 및 1년제 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으로 보건행정 지식인 양성의 요람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와 국가공인 병원행정사 자격검정에서 전국수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들은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정보 관리, 심사청구 및 원무행정 직무에 종사하고, 또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가는 등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신천지 예수교회, 이달 말까지 70여 개 도시 순회 말씀대회

전국 70여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적극적인 말씀 집회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신천지예수교회가 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집회에는 1500여명의 신자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집회는 지난 10월 이만희 총회장의 전국 순회말씀 대집회에 이어 열린 집회여서 관심이 높았다.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도마지파(지파장 이재상)는 성전을 개방하고 일반인에게도 개방했다.



대집회에서 익산교회 정재성 강사는 '씨 뿌림과 추수'에 대한 강의로 시작했다. 구약 선지자의 예언부터 예수님의 씨 뿌림과 계시록 성취 때 추수 역사에 대해 명확히 증거 했다. 부산 야고보지와 김경수 지파장을 초청 강사로 요한계시록 전장 사건을 증거하고, "매우 고차원적인 요한계시록을 알리는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다"며 "하늘이 택한 약속의 목자의 증거 말씀을 확인하고 천국과 영생의 복을 누리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윤성 기자



남원시 금동, 제1회 동민의 날 행사 가져

남원시 금동은 최근 남원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동발전협의회(회장 나덕주)가 주관한 제1회 금동 동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주민들과 관내 기관·단체장 등 600여 명이 함께하며 한해 동안의 시름을 잠시 잊고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날 행사는 금동농약단의 신명나는 터울림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자치사랑방 수강생들의 발표회, 전라북도 산나는 예술버스단의 공연과 동민노래 자랑, 행운권 추첨 및 공연단체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진 축하공이 펼쳐졌다. 금동 발전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금동, 살기 좋은 금동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LINC+사업단, 산학연관 교류 성황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송)은 지난 15일 산·학·연·관 협력의 장인 'JJ Techno Festa'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LINC+사업단은 지난 15년 동안 가족회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학협력 선도해오면서 산학연관 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산·학·연·관 교류와 협력의 마당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전주대는 매년 11월 셋째 주를 '산학협력 주간'으로 설정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전시하는 캠퍼스디자인 경진대회, 현장실습 참여 수기공모전,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4차 산업혁명기술체험, 2019 TRIZ 전국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산학협력축제의 마당에는 우수 가족회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명사 초청 특강 시간이 이뤄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남원축협 한돈 소비촉진 나눔행사 펼쳐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지부장 박노현)와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은 최근 남원노인복지관과 남원축협 축산물명품관에서 한돈 소비촉진 나눔행사 및 시식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과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으로 돼지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복지관에 돼지고기 30kg, 계란 10판 등의 축산물을 전달하고 돼지고기 시식회 개최를 통해 지역의 소외되는 이웃에게 사랑 나눔 실천을 약속했다. 박노현 지부장은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촉진과 안전성 홍보를 통한 수급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590-910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호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388-8874	남원지사 632-3938	고창지사 533-6939
010-9645-4113	인후지사 246-8855	김제지사 547-8855	완산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94
010-2333-4091	팔백지사 253-694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87
서산지사 272-9417	관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92-8157
호주지사 010-9645-9335	익산지사 656-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제교육지원청, 자치활동 역량강화 캠프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주)은 최근 관내 중·고등학교 23개교 학생자치회 임원 40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농생명센터에서 캠프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캠프 첫날에는 전주영생과 관해수선생님과 학생인권과 학생자치의 의미, 학생자치활동의 법적근거 등에 대해 배웠다. 둘째날 오전에는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포크리컨설팅 김재원 대표를 비롯한 6명의 퍼실리테이터들과 함께 정책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책제안은 정책명, 필요성, 내용, 기대효과를 작성한 후 분임별 발표를 통해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러 가지 제안된 정책들 중 특히 학교폭력과 왕따문제에 대한 정책명은 '왜 자꾸 나가 신경쓰여', 정책제안의 필요성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 문제해결방안으로 '신경쓰이는 아이들과 윤택놀이하여 친해지기'였다. /장은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